

번역학연구, 25(4), 297-306 (2024년 12월 31일)

<https://doi.org/10.15749/jts.2024.25.4.010>

## *Korean Grammar*

### *A Systemic Functional Approach\**

By Mira Kim, J. R. Martin, Gi-Hyun Shin, and Gyung Hee Choi, Cambridge, United Kingdo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3, 428 pp., Hardback, ISBN 9781316515341

이상빈(한국외국어대학교)

나는 2011년 8월에 『Fictional Characterization and Reader Respons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Lee, 2011, 2018). 이 논문은 소설 「날개」에 재현된 주인공의 Transitivity가 다수의 영어 번역본에서 어떻게 재구성됐는지를 분석한 후 그런 변화가 실제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내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제법 진지했다. 예컨대 분석 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과 관련된 책을 열다섯 권가량 구매해 살펴보기도 했다. 그중에는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Chinese』,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Japanese』,

---

\* 나는 다니엘 질(Daniel Gile)과 이영훈 교수의 도움을 받아 『번역학연구』 제16권 4호에 아주 짧은 서평 두 편을 게재한 바 있다. 본고는 그 후로 게재된 『번역학연구』의 첫 서평이다. 본 서평의 출판을 도와주신 편집위원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Spanish』처럼 내겐 외계어나 다름없는 언어를 다룬 이론서도 있었다. 내가 이런 책까지 본 이유는 한국어 기능문법을 다룬 이론서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번역학 내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은 내가 공부했던 15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위상이 좋아졌으나 여전히 소수 연구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경희(Gyung Hee Choi)가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해 통번역 연구(최경희, 2017, 2023; Choi, 2021, 2022)를 꾸준히 소개해 왔지만, 이렇다 할 후속 세대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에 반해 해외 번역학계는 일부 어군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었고, 학문적 명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김미라(Mira Kim), 보 왕(Bo Wang), 위안이 마(Yuanyi Ma) 같은 동아시아 계열의 학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문적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대목이다. 이 가운데 김미라는 학문적 거점을 호주로 옮긴 뒤, 평가(Kim, 2009), 독자 수용(김미라, 2012), 교육(Kim, 2007a, 2007b) 등의 분야에서 통번역학과 체계기능언어학의 접점(Kim & Lee, 2023; Kim & Matthiessen, 2015; Kim et al., 2021)을 오랫동안 모색해 왔다.

최근 3~4년 사이에는 중국어 관련 출판이 눈에 띈다. 특히 보 왕과 위안이 마가 가히 ‘공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관련 서적을 연이어 선보였다. 예를 들면 『Lao She’s *Teahouse* and Its Two English Translations』(2020), 『Systemic Functional Translation Studies: Theoretical Insights and New Directions』(2021), 『Translating Tagore’s *Stray Birds* into Chinese: Applying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to Chinese Poetry Translation』(2021), 『Key Themes and New Directions in Systemic Functional Translation Studies』(2022) 등이 두 연구자의 최근 성과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책은 나 같은 한국어 연구자들에게 크게 와닿진 않는다. 중국어를 모르는 데다, 실제 연구를 수행하려면 한국어 문법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최근 출간된 『Korean Grammar: A Systemic Functional Approach』(이하 “KSFG”)가 체계기능언어학에 관심 있는 한국어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단비 같은 존재일지를 상상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터이다.

『KSFG』를 받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책의 크기와 커버에 관한 것이었다. 학위논문을 쓰던 시절에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Japanese』

(Vols. 1-2)에 관한 서평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서평에는 다권본 출판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담겨 있었다. 비판의 요는 이랬다. 이 문법서는 불필요하게 두 권으로 분할됐고,<sup>1)</sup> 그 결과 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487 pp., \$360). 당시 나는 이런 내용도 서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살짝 놀랐는데, 그러다 보니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내용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KSFG』의 저자들과 출판사는 작은 폰트로 내용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428쪽 분량에 많은 내용을 담았다. 특히 『KSFG』는 휴대가 간편한 신국판(152×225) 크기에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 장기간 곁에 두고 보기에 좋다. 체계기능언어학은 단기간에 터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기본 이론서의 경우 책의 크기와 물질적 생명력도 중요하다.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th ed.)를 생각해 보라. 일종의 바이블인 이 책은 A4 용지 크기에 800쪽이 넘는다. 요즘 학생들 말로 ‘벽돌책’인 셈이다. 경험상 이런 책은 체계기능언어학에 진입하려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래서 나는 첫 기능문법 수업(교과목명: “담화분석과 번역”, 2014년 1학기)에서 제프 톰프슨(Geoff Thompson)의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3rd ed., 313 pp.)를 사용한 바 있다. 『KSFG』 역시 부족하지도 너무 부담되지도 않아 마음에 든다.

『KSFG』는 총 일곱 개의 장(章)으로 구성돼 있다. 장 간의 연계는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설계된 듯하다. 이를테면 Introduction to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Korean(제1장), The Grammar of Groups and Phrases in Korean(제2장), The Grammar of Interpersonal Meaning in Korean: Mood(제3장), The Grammar of Experiential Meaning in Korean: Transitivity(제4장), The Grammar of Textual Meaning in Korean: Theme(제5장), The Grammar of Logical Meaning in Korean: Clause(제6장), Two Applications(제7장)라는 장 배열은 내게 익숙한 다른 이론서와 비슷하다. 다만 마지막 장(pp. 371-414)에는 통번역과 관련된 사례 분석 등이 짝막

1) 2000년대 중후반부터 Continuum 출판사에서 다양한 기능문법 책이 시리즈로 출간됐다.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 예컨대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Chinese』(2007),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French』(2008),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Spanish』(2012)는 다권본 형태로 출판되지 않았다.

하게나마 소개된다. 이는 김미라와 최경희가 통번역 실무자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을 공부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듯싶다.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 문법을 이론화할 때는 개념의 전이와 확장, 즉 ‘번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은 개념을 수용해야 할 학습자에게도 반드시 수반되는 사고 메커니즘이다. 이런 점에서 본연의 번역을 다룬 마지막 장은 이중으로 가치가 있으며, 다른 비영어 문법서에서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한국어 기능문법을 완성하는 일은 길고 긴 ‘번역’ 작업과도 같다. 체계기능언어학의 ‘출발어’인 영어와 비교할 때 한국어라는 ‘도착어’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변칙적이다. 이런 이유로 유명한 개론서를 독파한 사람도 간단한 한국어 문장 하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다. 나 같은 사람이 편협하게나마 이론적 연구를 시도하긴 했으나, 그런 노력은 대개 단발성으로 끝나고 학문적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Lee, 2011). 이런 한계와 문제들은 이제 『KSFG』 덕택에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KSFG』의 언어와 예시들은 간결하고 명확해서 좋다. 예컨대 내가 학생 시절 고민했던 — 그때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몰랐던 — 개념인 Undergoer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Undergoer*: Alongside the Actor, material clauses in Korean may involve an Undergoer — a Participant directly affected by something going on. The Undergoer is prototypically marked by 을/를 *eul/reul* (P2) as shown in (12) and (13). (Kim et al., 2023, p. 190)

윗글이 Undergoer의 일차적 정의이다. 발췌문 다음에는 “(12) 진수가 [Undergoer:]안경을 발로 짓밟았다”와 “(13) 수상한 물체가 [Undergoer:]비행기를 쫓고 있다”라는 예시가 상세한 분석과 함께 등장한다. 하지만 ‘...을/를’로 표현되는 요소들이 무조건 Undergoer가 되는 건 아닐 테니, 이 정의와 예시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Undergoer를 색인에서 찾아왔다. 아쉽게도 색인은 190쪽에 있는 내용(위 발췌문)이 전부라고 말해준다. 다시 190쪽으로 돌아와 몇 장을 더 읽어 보니, Undergoer는 특정 조건에서 Range와 구별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예를 들어 “그 부부는 [Range:]세

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녔다”라는 문장에서 ‘세상’은 Process(“돌아다녔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Undergoer가 아닌 Range가 된다는 것이다(pp. 195-196). 결국, Undergoer의 개념과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위 발췌 문뿐만 아니라 195-196쪽의 내용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처럼 『KSFG』를 통해 Undergoer라는 용어를 단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한 색인의 역할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책을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색인은 저자의 소관이 아닐 때가 많다. 기계적으로 제작되기도 하고, 그 역할이 형식적일 때도 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떤 분야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책이라면 색인도 달라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KSFG』와 같은 핵심 이론서를 보는 연구자라면 개념 하나를 분석할 때도 다양한 어휘·문법적 맥락을 고려할 테니, 색인 정보도 그만큼 치밀하게 조직되어야 한다.<sup>2)</sup> 물론 ‘찾기’ 기능을 지원하는 전자책이라면 이런 고민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 같은 올드스쿨(old school)은 제대로 읽어야 할 책의 경우 반드시 종이책으로 구매한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Transitivity 분석 외에 한국어 연구자들이 큰 관심을 보일만한 분야는 아마도 Theme-Rheme<sup>3)</sup>일 것이다. 한국어의 Theme 구조가 영어나 로망스어군(Romance languages)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하고, 국내 번역학계에서 Theme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KSFG』에서 Textual Meaning에 할당된 분량이 30쪽 정도이니, 다른 장과 비교해 볼 때 Theme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sup>4)</sup> 따라서 산술적으로만 생각하면 Theme에 관한 논의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2) 목차의 치밀함도 중요하다. 유아사(Yuasa, 2008, p. 521)는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Japanese』의 목차가 “매우 짧다”(very brief)고 지적하면서, 이론서의 독자 친화성을 강조한다. 『KSFG』의 목차는 박사학위 논문의 목차처럼 매우 상세하다.

3) 국내 번역 연구자들이 Theme을 ‘테마’로, Rheme을 ‘레마’로 부른다. Theme의 기본 개념(메시지의 출발점)과 Rheme의 파생적 지위를 고려할 때 김미라 교수 등이 쓰는 ‘이끔부’(Theme), ‘딸림부’(Rheme)라는 용어가 적절해 보인다.

4) 가령 제프 톰프슨의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3rd.)에서는 Transitivity에 50쪽, Theme에 40쪽가량을 할애하였다. 『KSFG』의 경우 전자는 약 100쪽, 후자는 약 30쪽을 차지한다.

그래도 Theme에 관한 예시들은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었다. 가령 다음 예시들은 한국어 Theme 체계의 특성을 아주 담백하게 담아냈다(p. 287).

Topical Theme		Rheme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사상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i>Ssai =ui Gangnam Seutail myujik bidio</i>	=ga	<i>Yutyubeu sasang choecho =ro</i>	<i>20 eok byu =reul</i>	<i>dolpaha-et seumnida</i>
Psy's Gangnam Style music video	EFM	for the first time in YouTube history	2 billion viewings	recorded
P1:Actor		Cir:Location	P2:E-Range	Process
Psy's Gangnam Style music video has recorded 2 billion viewings for the first time in YouTube history.				

Topical Theme		Rheme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오늘 낮 12시 30분 조회수 20억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i>Gangnam Seutail myujik bidio</i>	=neun	<i>oneul nat 12 si 30 bun</i>	<i>johoesu 20 eok 2 cheon geon =eul</i>	<i>girokha-et seumnida</i>
Gangnam Style music video	TFM	today at 12.30 pm	2 billion 2 thousand viewings	recorded
P1:Actor		Cir:Location	P2:E-Range	Process
The Gangnam Style music video had recorded 2 billion 2 thousand viewings as of 12.30 this afternoon.				

여기서 주목할 점은 Topical Theme의 실현 방식, 특히 EFM(Experiential Function Marker)과 TFM(Textual Functional Marker)의 차이이다. 한국인이라면 비교적 쉽게 구분하는 ‘은/는’과 ‘이/가’의 차이를 기능문법의 관점에서 시각화한 것인데, 이 사례에서 『KSFG』의 저자들은 Theme의 종류와 기능을 군더더기 없이,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한국어 사용자는 담론 정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Anticipated vs Non-anticipated)에 따라 TFM(‘은/는’)과 EFM(‘이/가’)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을 모르는 사람이 이처럼 깨알 같은 분석을 보면 지레 겁부터 먹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국인 독자라면 저자가 설명하는 한국어 어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오히려 영어 문법서를 읽을 때보다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래, 한국어는 이렇지!’ 하면서 말이다.

『KSFG』 출판까지 10년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그래서인지 김미라 교수

는 이렇게 훌륭한 책을 출판하고도 약간 멋쩍은 말투로, “계획과 달리 너무 오래 걸렸다”라고 무안해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최경희 교수는 별로 한 게 없다며 평소처럼 차분한 어조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렸다. 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KSFG』야말로 그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업적이라고. 50년, 아니 그 이상 이어질 학문적 성과인데,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무슨 상관인가?

마샬 필(Marshall Pihl)이라는 미국인은 오랜 연구 끝에 최초의 판소리 영어 이론서인 『The Korean Singer of Tales』(1994)를 출간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수록된 「심청가」 영역본은 상세한 주석이 담긴 최초의 완역본(완판본)으로, 지금도 누구 하나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 번역으로 남아 있다(이상빈, 2021; Lee, 2021). 『KSFG』의 저자들도 이런 역작을 남긴 것이다.

이 서평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몇몇 언어에서는 15여 년 전 출판된 초창기 문법서 외에도 여러 연구자를 통해 다양한 이론서가 출간되었다. 예컨대 프랑스어에서는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French: A Simple Introduction』이 2017년에 출간되었고, 일본어의 경우 『A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s of Japanese』와 『Japanese Mood and Modality i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가 각각 2013년과 2021년에 발행되었다. 이러한 후속 연구는 해당 언어의 이론화를 한 차원 끌어올리고 학문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제 한국어에서도 튼실한 학문적 토대가 완성되었으니, 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Keywords:**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functional grammar; translation studies; transitivity; theme and rheme

**키워드:** 체계기능언어학, 기능문법, 번역학, 동사성, 이끔부와 딸림부

## 참고문헌

김미라. (2012). 한영 단편소설 번역에 있어 ‘이끔부(Theme)’의 선택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조의연. (편). 번역학 무엇을 연구하는가: 언어적·문

- 화적·사회적 접근 (pp. 53-83). 동국대학교 출판부.
- 이상빈. (2021). 판소리는 어떻게 풍요롭게 번역할 수 있는가 — 마살 필의 <심청가> 번역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5(4), 173-200.
- 최경희. (2017). 학부 한영번역에서 주제부 전개방식(Thematic development)의 사용: 문제 진단 및 전문가 번역과의 비교. *번역학연구*, 18(5), 253-276.
- 최경희. (2023).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동사의 노트데이킹 방안: 영한 순차통역 교실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321-350.
- Banks, D. (2017).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French: A simple introduction*. Routledge.
- Caffarel-Cayron, A. (2008).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French: From grammar to discourse*. Continuum.
- Choi, G. H. (2021). How much written-ness is enough? The significance of teaching ‘grammatical metaphor’ in English-Korean translation. *통번역학연구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25(2), 113-145.
- Choi, G. H. (2022). Some thoughts on translation studies and SFL. *번역·언어·기술 [TransLinguaTech]*, 3, 111-152.
- Halliday, M.A.K., & Matthiessen, C. M.I.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 Kadooka, K.-I. (Ed.). (2021). *Japanese mood and modality i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John Benjamins.
- Kim, M. (2007a). Translation error analysis: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approach. In D. Kenny & K. Ryou (Eds.), *Across boundarie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translation studies* (pp. 161-175).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Kim, M. (2007b). Using systemic functional text analysis for translator education: An illustration with a focus on textual meaning.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2), 223-246.
- Kim, M. (2009). Meaning-oriented assessment of translations: SFL and its application to formative assessment. In C. V. Angelelli & H. E. Jacobson (Eds.), *Testing and assessmen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pp.

- 123-157). John Benjamins.
- Kim, M., & Lee, J. (2023).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Korean and its application to interpreting studies. In R. Moratto & H.-O. Lim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Korean interpreting* (pp. 225-241). Routledge.
- Kim, M., Martin, J. R., Shin, G.-H., & Choi, G. H. (2023). *Korean grammar: A systemic functional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m, M., & Matthiessen, C. M.I.M. (2015). Ways to move forward in translation studies: A textual perspective. *Target*, 27(3), 335-350.
- Kim, M., Munday, J., Wang, Z., & Wang, P. (Eds.). (2021).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Bloomsbury Academic.
- Lavid, J., Arús, J., & Zamorano-Mansilla, J. R. (2012).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Spanish: A contrastive study with English*. Continuum.
- Lee, S.-B. (2011). *Fictional characterization and reader response: A comparative transitivity analysis of Yi Sang's Nalgae and its translations and a reader-response questionnaire survey*.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ee, S.-B. (2018). Shifts in characterization in literary translation: Representation of the "I"-protagonist of Yi Sang's *Wings*. *Acta Koreana*, 21(1), 283-307.
- Lee, S.-B. (2021). Marshall R. Pihl's translation of *ch'ang* (song) in "Sim Ch'öng ka." *Acta Koreana*, 24(2), 31-54.
- Li, E. S. (2007).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Chinese*. Continuum.
- Ma, Y., & Wang, B. (2021). *Systemic functional translation studies: Theoretical insights and new directions*. Equinox Publishing.
- Pihl, M. (1994). *The Korean singer of tales*. Harvard University Press.
- Teruya, K. (2007).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Japanese* (Vols. 1-2). Continuum.
- Thompson, G. (2013).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3rd ed.). Routledge.
- Thomson, E. A., & Armour, W. S. (Eds.). (2013). *A systemic functional perspectives of Japanese*. Equinox Publishing.
- Wang, B., & Ma, Y. (2020). *Lao She's Teahouse and its two English*

*translations: Exploring Chinese drama translation with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Routledge.

Wang, B., & Ma, Y. (2021). *Translating Tagore's Stray Birds into Chinese: Applying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to Chinese poetry translation*. Routledge.

Wang, B., & Ma, Y. (Eds.). (2022). *Key themes and new directions in systemic functional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Yuasa, E. (2008). Review of the book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Japanese*, by Kazuhiro Teruya.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2(2), 516-523.

이상빈(<https://orcid.org/0000-0003-2140-3266>)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영어통번역학과) 교수

sblee0110@naver.com

원고 투고일: 2024년 9월 19일

1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1월 30일

2차 심사 완료일: 2024년 12월 7일

게재 확정일: 2024년 12월 14일